

## 30장(2) 속전과 물두멍, 관유와 분향할 향

성막 건축의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이 일곱 번 나온다고 하였는데, 30장 후반부에서 네 번 나온다(30:11, 17, 22, 34. 참조: 25:1; 31:1, 12). **속전, 물두멍, 관유, 향품**에 관한 네 가지 규례와 함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기록한다.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가지는 모두 성전에서 봉사하는 데에 직접 사용되는 것들이어서 성막 건설에 관한 규정이 막 바지에 이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네 가지에는 모두 죽음의 위협이 있었다(12, 21, 33, 39절). 네 가지 규례를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이 규례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사망으로 경고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오게 안내해 주고 있다.

### 1. 속전 (30:11-16)

이스라엘에서는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하였다. 15절에서는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라는 말로 ‘생명의 속전’을 설명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속하여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기념하여서 ‘생명의 속전’을 바쳤다. 사람이 값을 치르고 자기의 생명을 속하라고 하면 그 값이 엄청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그들의 생명을 속해 주셨고, 속죄제의 피로 정결케 된 시은좌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신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값을 내지 않았고, 대속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속전’을 드렸다.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더 내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않았고, 모든 백성이 일생에 한 번 동등하게 바쳤다. 그 액수는 반 세겔이었고, 은 6그램이었다(출 38:26). 그렇게 낸 생명의 속전, 반 세겔은 회막 봉사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문맥을 보면 향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회막의 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생명의 속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해 주시는 역할을 하였다. 회막 봉사에 쓰인 생명의 속전을 보시고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였다(16절). 생명의 속전을 내면 백성 중에 질병이 없이 그들이 보존될 것이었다(12절).

후대의 역사를 보면, 20세 이상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은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되었다. 군인이 많음을 볼 때에 자만하는 마음을 갖기 쉬웠는데(참조: 삼하 24:1-2; 대상 21:1-5; 대하 2:17-18), 그들의 생명에 대한 속전을 내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여호와의 은혜에 근거함을 깨닫게 하였다.

### 2. 물두멍 (30:17-21)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는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있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기에서 손발을 씻은 후에 성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단에서 봉사하기도 하였다.

제사 드리는 일을 마치면 손에 피가 묻어 있을 것이지만, 제사의 일을 마치고 회막을 떠날 때에 씻은 것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거나 분향하거나 진설병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 전에 손을 씻도록 하였다.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정결케 되어야 함을 이러한 예식으로도 분명하게 알려 주신 것이다.

### 3. 관유 (30:22-33)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다. 가장 좋은 향품에 순수한 몰약, 향기로운 육계, 향초, 계피 등을 감람 기름으로 섞어서 만들었다. 여기에 규정된 분량을 모두 합하면 1,500 세겔이고, 약 17킬로그램이 된다. 기름은 한 힌, 약 3.6리터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17킬로그램의 향료를 적은 양의 기름으로 섞으려면 매우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했을 것이다(22-25절).

마음을 기우려 만든 관유로 회막과 기구들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증거제, 진설병, 등대, 분향단, 번제

단, 물두멍과 각각의 기구들에 발랐다(26-30절).

동시에 아론과 그 아들들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제사장도 성막의 일부로 간주되어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한 것이고, 거룩하게 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의 직분을 행하였다(31-32절).

관유는 여호와께 직접 접촉하는 물건이나 사람에게만 발랐다. 다른 사람에게 바르지 않아야 하였고, 그것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붓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졌다(33절).

#### 4. 향 (30:34-38)

분향단에서 사용할 향품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였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향품도 포함된 매우 귀한 것이었다.

이러한 향품에 유향을 섞고, 또한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하였다. 소금을 섞어서 만들면 가루가 잘 섞일 뿐 아니라 불에서도 잘 탄다고 한다. 소금은 소제를 드릴 때에 사용하기도 하였고(레 2:13), 언약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민 18:19; 대하 13:5).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방식으로 만든 향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는 회막 안 증거대 앞에 두게 하였다.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 않고 필요한 만큼 제조하여 바로 분향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거룩한 향품은 많이 만들어서 다른 곳에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성소 안에 두고서 사용하게 하였다. 그 향의 향기는 다른 데에서는 맡을 수 없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향을 만들어서 그 냄새를 맡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하였다. 거룩하신 여호와께 접촉되어 사용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다. 분향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였다.

#### 목상과 실천:

##### 생명의 속전과 물두멍, 관유와 향품

31장 후반부에 나오는 네 규례에는 사망의 위협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생명의 속전을 바칠 때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질병에서 구원을 받고(30:12), 물 두멍에서 씻어야 죽기를 면할 것이고(30:21), 관유를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자나 다른 사람에게 붓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30:33), 거룩한 향을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자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30:38). 여호와께 나아오는 일에는 경건한 두려움이 수반되어야 하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알려 주셨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알려 주시면서 엄격히 금지하신 것에는 주님께 나아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30장은 ‘분향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생명의 속전 - 물두멍- 관유’를 거쳐서 ‘향’을 만드는 규례로 마무리된다. ‘분향단’과 ‘향’에 관한 규례의 중앙에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들이 바치는 속전이 특히 향을 만드는 데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분향단과 향에 관한 규례를 두셨다. 이것은 성막이 완성되었어도 백성이 여호와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거나 분향으로 상징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성막이 유무무실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시는 일이다. 거룩함을 보여 주신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규례대로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초청하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례를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얻으려고 생명의 속전을 바친 것이 아니라 속함을 받은 사실을 기념하

면서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1회에 걸쳐서 생명의 속전을 드렸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속함을 받는 사실을 구약의 규례는 생생하게 알려 주신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대속물’ (뤼트론)으로 번역되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값을 다 치르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주님의 백성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살도록 부르신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이러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자기 백성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 30장 (2) 익힘 문제

#### 1.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입니다

- 1) 성소의 세겔대로 몇 세겔을 내라고 하셨습니까? (13절)
- 2) 몇 세 이상 된 자가 드리라고 하였습니까? (13절)
- 3)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15절)
- 4) 그 돈은 어디에 쓰라고 하셨습니까? (16절)

#### 2. 여호라게서 모세에게 문두멍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 1) 문두멍을 무엇으로 만드라고 하셨습니까? (18절)
- 2) 문두멍을 어디에 두라고 하셨습니까? (18절)
- 3) 문두멍은 누가 수족을 씻는 곳입니까? (19절)
- 4) 언제 씻으라고 하셨습니까? (20절)
- 5) 그 수족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21절)

#### 3. 관유에 관한 규례입니다.

- 1) 거룩한 관유는 무엇으로 만드는지 찾아서 써보십시오. (23-25절)
- 2) 거룩한 관유는 어디에 바르는지 찾아서 써보십시오. (26-30절)
- 3)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에게 바르는 관유를 만들거나 바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33절)

#### 4. 거룩한 향에 관해 여호라게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 1) 거룩한 향은 무엇으로 만드는지 찾아서 써보십시오. (34절)
- 2) 향을 만들 때는 그것에 무엇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35절)
- 3) 거룩한 향은 어디에 두라고 하셨습니까? (36절)
- 4) 거룩한 향을 다른 목적으로 만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38절)